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hild's Temperame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s Emotion Regulation on Child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박지숙(Jee Sook Park)¹⁾

임승현(Seung Hyun Lim)²⁾

박성연(Seong Yeon Park)³⁾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ath model of child's sex, temperament,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s emotion regulation on child social behaviors. The subjects were 286 elementary school children. Data were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reported by mothers and teachers. Path analysis revealed that (1) mother's overprotective or coercive parenting behaviors effected neither child's emotion regulation nor social behaviors (2) child's sex and activity level effected child's aggressio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child's emotion regulation (3) child's 'activity level' and 'avoidance' temperament effected child's social withdrawal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child's emotion regulation. Findings underscore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in predicting child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Key Words : 기질(temperament),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공격성(aggression),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자료의 일부임.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전공

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³⁾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및 아동학협동과정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ong Yeon Park, Dept.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College of Social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I. 서 론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된다. 특히 아동기의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 등 역기능적인 사회적 행동은 아동의 또래 관계 및 여러 가지 발달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양희 · 김윤영, 2002), 성인기의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한다. 즉 아동기의 공격성은 또래거부를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Coie & Dodge, 1998), 생애 초기에 형성된 공격성은 성인기에도 지속되며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초래한다(Tremblay, 2000). 사회적 위축 또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이나 외로움, 우울감 등의 정서 ·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며 부정적인 성격특성으로 발전될 수 있어(Hymel, Bowker, & Woody, 1993; Rubin, Burgess, Kennedy, & Stewart, 2003), 연구자들은 이러한 행동들과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공격적인 행동이나 사회적 위축행동은 성이나 기질 등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나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공격성은 성호르몬의 영향에 따른 생물학적 특성이나 사회화과정에 의해 남아에게서 두드러지며(Maccoby & Jacklin, 1983; Trambly, 2000), 사회적 위축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다(조인영, 2007). 그러나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에 성차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김수미 · 이숙, 2000; 신유림, 2007). 유전적 성향이 강한 기질 또한 공격적 품행장애를 예측하는데 있어 가족변인이나 사회 환경적 변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Lambert, 1988). 아동의 기

질의 경우, 여러 요인들 중 특히 활동성 또는 정서성 및 사회성은 공격성과 밀접한 상관을 보인다(김정원 · 김현주, 2007; 윤진주 · 강신영 · 이복주, 2005; 임희수, 2001). 반면 두려움이 큰 기질적 특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내는 위축행동과 관련이 있다(Kagan, Reznick, & Snidman, 1988).

성이나 기질 외에도 부모의 양육행동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비밀관적, 거부적인 양육행동이나 강압적이거나 처벌적인 양육행동 또는 심리적 통제행동은 아동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지윤, 2007; 선우현정, 2008; 전숙영, 2007). 또한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받거나(Mills & Rubin, 1998;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 강압적인 양육행동 혹은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아동은 사회적인 위축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김귀연 · 김경연, 2005; 전숙영, 2007; Barber, Olsen, & Shagle, 1994). 이러한 부모의 거부적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모델로서 또는 부모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함으로써 아동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길러주게 된다. 특히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큰 아동의 경우 과보호적이거나 간섭적, 통제적인 행동은 자율성을 저해함으로써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Hastings, Rubin, & DeRose, 2005). 따라서 양육행동은 직접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조절 능력을 통해서도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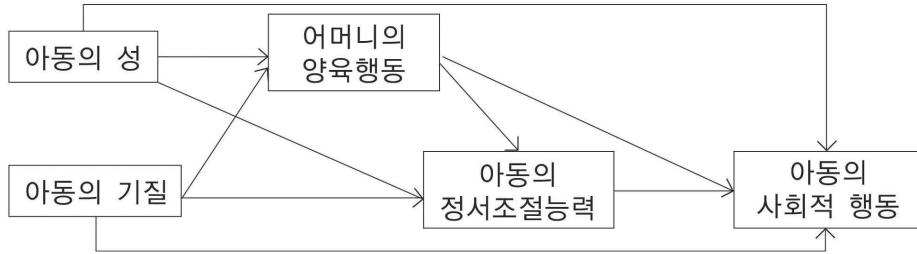
정서조절능력이란 자신이나 상대방의 정서나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 수준을 적응적으로 처리하는 능력(Calkins, 1994; Kopp, 1989)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

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보임으로써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박혜경·박성연, 2002; 한유진, 2007; Eisenberg, Fabes, Shepard, Guthrie, Murphy, & Reise, 1999). 또한 사회적인 경험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은 아동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두려움을 가지거나 행동억제를 나타내어 또래관계에서도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된다(노서연, 2003; Calkins, 1994). 같은 맥락에서 Cassidy, Parke, Butkovsky와 Braungart (1992)도 학업부진, 또래관계에서의 문제, 충동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사회적 적응문제 등이 정서와 관련된다는 점을 보고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또래집단과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같이 사회적 관계형성에 중요한 요소인 정서조절능력은 신경조절 체계나 기질, 성 등 아동의 내적요인과 부모의 상호작용방식이나 구체적인 행동 등 외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Calkins, 1994) 아동에 따라 개인차를 보인다. 대체로 유전적 성향에 기인하는 기질은 정서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어, 적응성이 높을수록 감정 조절 및 충동억제를 적절하게 하며, 활동성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김경희·김경희, 1999; 박지숙·박성연, 2008). 또한 기질 중 수줍음이나 부정적인 정서성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낮다고 보고되어(김지윤, 2007) 기질 차원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는 비 일관적이어서 남아는 여아보다 정서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박지숙·박성연, 2008; 오희옥·오선영·김영희, 2007; Weinberg, Tronick, Cohn, & Olsen, 1999)도 있으나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다는 보고(김경희·김경희, 1998)도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중 하나이다. 부모의 합리적 지도나 애정적 양육행동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정서조절 능력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부모의 강압적이거나 거부적인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양연숙·조복희, 2001; 임희수·박성연, 2001). 그러나 박지숙과 박성연(2008)은 양육행동이 정서조절 능력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활동성 기질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쳐 활동성이 높을 때는 양육행동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활동성이 낮을 때는 특히 민주적인 경우 정서조절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양육행동이 정서조절 능력에 중재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Rubin, Burgess와 Hastings(2002) 또한 2세 때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컸던 아동일지라도 어머니가 간섭적인 통제를 많이 하는 경우에만 4세 때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행동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해 특히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어머니의 간섭적, 통제적인 양육행동으로 인해 낮은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욱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의 성이나 기질,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모든 변인들은 또한 아동이 나타내는 공격성이나 사회적인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서조절능력이나 사회적 행동 각각을 대상으로 그 관련 변인들을 연구하거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는 한편, 몇몇 연구들이 일부 변인들 간의 중재적인 역할을 다루고 있다. 반면



<그림 1> 연구모형

에 이러한 변인들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사회적인 행동 발달의 기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Calkins(1994)의 주장에 의하면 아동이 타고난 특성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조절능력은 친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성, 위축행동 등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 과정에서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한편, 각기 정서조절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친사회성,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행동 등 또래와의 상호작용 양상이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Calkins의 모델을 중심으로 아동기 시기의 사회적 부적응 행동인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초점을 두어 아동의 개인적 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변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286명(남아 142명, 여아 144명)과 그 어머니들로 아동의 평균연령은 7.2세($SD=.73$)이었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8.2세($SD=3.70$)로 어머니의 약 64%가 대학졸업 이상이었고, 약 46%가 전업주부였으며, 어머니들은 가정의 경제수준을 대체로 중류로 지각하였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Windle과 Lerner(1986)의 개정판 기질차원 척도(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 DOTS-R)를 번안·수정한 이명숙(1994)의 ‘아동 및 청소년 기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기질척도는 10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공격성이나 위축행동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된 활동성(6문항), 접근·철회성(12문항), 정서성(6문항)의 3개 차원, 24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활동성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행동으로 정의되며, 접근·철회성은 자극에 대

한 접근성향이나 회피 등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용이성을 뜻하고, 정서성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의 균형정도를 뜻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접근·철회성 중 ‘접근성’과 정서성 중 ‘긍정적’ 정서내용을 역부호화하여 ‘회피’와 ‘부정적 정서’를 뜻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기질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3개 하위차원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1~.84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Goleman(1995), Saarni(1990), Salovey와 Mayer(1996)의 연구를 토대로 이병래(1997)가 제작한 정서지능 척도 중 정서조절능력 17문항을 교사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조절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5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임희수(2001)의 척도 중 강압적,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관련된 총 2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강압적 양육행동(9문항)은 부모가 설정한 기준에 맞추도록 처벌적이거나 비난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과보호적 양육행동(13문항)은 자녀에 대해 지나친 염려를 하거나 관심을 보여 일일이 간섭하거나 지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본 척도 역시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양육행동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을 뜻하며, 강압적 행동과 과보호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α =.84와 .71로 나타났다.

4)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행동

아동의 사회적 행동 중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chwartz, Chang과 Farver(2000)의 교사용 척도를 박혜경(2001)이 번안하고 수정한 8개 문항 중 외현적 공격성 에 관한 5개 문항만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위축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chwartz, Farver, Chang과 Lee-Shin(2002)의 교사용 척도 중 사회적 위축에 관한 5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또는 사회적 위축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α =.96와 α =.84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3개 초등학교의 1, 2학년 아동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총 395개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된 293부 중 일부자료가 미비하거나 연구대상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286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적 행동은 각 아동의 담임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기초분석으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이상치를 확인하는 한편, 회귀분석을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이상치)나

1) 본 연구대상의 모든 측정치의 Z값을 살펴본 결과 모두 기준치 3.29 이하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잔차값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²⁾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그리고 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아동의 성은 ‘활동성’ 기질 및 공격성과 부적인 상관($r=-.16, p<.001$; $r=-.38, p<.001$)을 나타낸 반면, ‘회피’ 기질이나 정서조절능력과는 정적인 상관($r=.13, p<.05$; $r=.27, p<.001$)을 나타내었다. 즉 남이는 ‘활동성’ 기질과 공격성이 높은 반면, 여아는 ‘회피’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이 높았다. 그러나 아동의 성은 ‘부정적 정서’ 기질이나 어머니의 양육행동, 그리고 사회적 위축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기질 하위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회피’와 ‘부정적 정서’간의 정적 상관($r=.46, p<.001$)이 나타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 ‘회피’ 성향이 높았다.

한편 아동의 ‘활동성’, ‘회피’ 및 ‘부정적 정서’ 기질은 모두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강압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정적인 내용의 기질특성들은 ‘과보호적’ 양육과 함께 ‘강압적’ 양육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활동성’

기질은 정서조절능력과는 부적인 상관($r=-.28, p<.001$)을 보인 반면, 공격성과는 정적인 상관($r=.29, p<.001$)을 나타내 활동성이 높으면 정서조절능력이 낮고 공격성이 높았다. 한편, ‘회피’ 기질은 사회적 위축과만 정적인 상관($r=.20, p<.001$)을 나타내 ‘회피’ 기질이 높으면 사회적 위축행동이 높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서성’은 정서조절이나 공격성 또는 사회적 위축행동과 전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정서조절능력이나 사회적 행동과는 전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조절 능력은 공격성($r=-.63, p<.001$)이나 사회적 위축행동과 유의한 부적상관($r=-.25, p<.001$)을 보여 정서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공격성이나 사회적인 위축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2. 아동의 성, 기질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행동 등 사회적 행동에 관련된 변인들은 아동의 성,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과 회피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를 위한 경로분석에서는 양육행동을 포함하지 않았다. 우선 아동의 성과 ‘활동성’ 및 ‘회피’ 기질이 공격성 또는 사회적 위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서조절능력을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아동의 성($\beta=.22, p<.001$), ‘활동성’($\beta=-.25, p<.001$) 및 ‘회피’($\beta=.08, p<.10$) 기질은 정서조절능력의 변량을 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일 경우 및 활동성 수준이 낮을 때 아동은 높은 정서조절 능력을 나타내었다.

은 평균값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인 2 이하로 나타나 본 자료의 이상치가 없었음.

2) VIF는 1.046~1.134 범위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치인 VIF 10 이상(이학석·임지훈, 2008)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없었음.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 (N=286)

	1	2	3	4	5	6	7	8	9
1. 성	-								
2. 활동성	-.16**	-							
3. 회피	.13*	.01	-						
4. 부정적 정서	-.04	-.09	.46***	-					
5. 과보호적 양육행동	.01	.23***	.21**	.20***	-				
6. 강압적 양육행동	-.02	.38***	.15**	.20***	.50***	-			
7. 정서조절 능력	.27***	-.28***	.11	-.05	-.07	-.04	-		
8. 공격성	-.38***	.29***	-.08	.03	.02	.06	-.63***	-	
9. 사회적 위축	.02	-.06	.20***	.06	.02	-.06	-.25***	.05	-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성 : 0=남아, 1=여아

<표 2>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N=286)

변인	B	β	t	F(df)	R ²
성	.31	.22***	3.81		
활동성	-.29	-.25***	-4.41	14.71(3.282)***	.13
회피	.13	.08+	1.45		

+ $p < .10$ *** $p < .001$
 아동의 성 : 0=남아, 1=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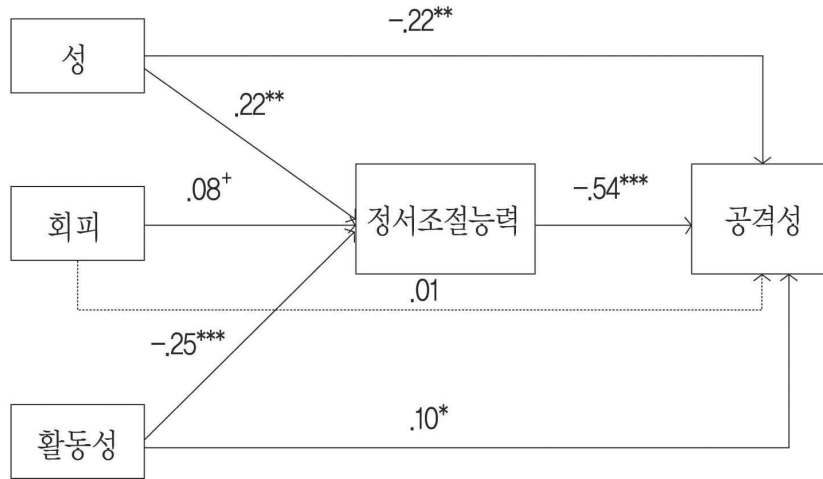
한편,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아동의 성, 기질 중 활동성과 회피, 그리고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의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3> 참조),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아동의 ‘성’($\beta = -.22, p < .001$), ‘활동성’ 기질($\beta = .10, p < .05$) 및 ‘정서조절능력’($\beta = -.54, p < .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공격성 변량을 45% 설명하였다. 즉 남아가 그리고 활동성 기질이 높고, 정서조절능력이 낮을수록 공격성

<표 3>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N=286)

변인	B	β	t	F(df)	R ²
성	-.37	-.22***	-4.75		
활동성	.14	.10*	2.18	58.30(4,281)***	.45
회피	.01	.01	.15		
정서조절능력	-.63	-.54***	-11.46		

* $p < .05$ *** $p < .001$
 아동의 성 : 0=남아, 1=여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2> 아동의 성, 회피, 활동성 및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 높았다.

공격성에 대한 각 변인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즉 아동의 성과 ‘활동성’ 기질은 아동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동의 회피는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쳐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표 4>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선행변인들의 인과효과 (N=286)

변인	공격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성	-.22	-.12	-.34
활동성	.10	.14	.24
회피	.01	-.04	-.03
정서조절능력	-.54	-	-.54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 변인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성’ 그리고 ‘활동성’ 기질의 순서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성,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각 연구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사회적 위축을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아동의 ‘회피’ 기질($\beta = .23, p < .001$)과 ‘활동성’ 기질($\beta = -.14, p < .05$), 그리고 ‘정서조절능력’($\beta = -.32, p < .001$)이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변량은 12%이었다. 즉 아동의 성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으며, ‘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활동성’ 수준과 정서조절능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행동이 높았다.

<표 5> 사회적 위축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N=286)

변인	B	β	t	F(df)	R ²
성	.08	.05	.87	10.81(4.281)***	.12
활동성	-.17	-.14*	-2.43		
회피	.37	.23***	4.06		
정서조절능력	-.33	-.32***	-5.40		

* $p < .05$ *** $p < .001$

아동의 성 : 0=남아, 1=여아

사회적 위축에 대한 각 변인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즉 아동의 회피와 활동성 기질은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동의 성은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위축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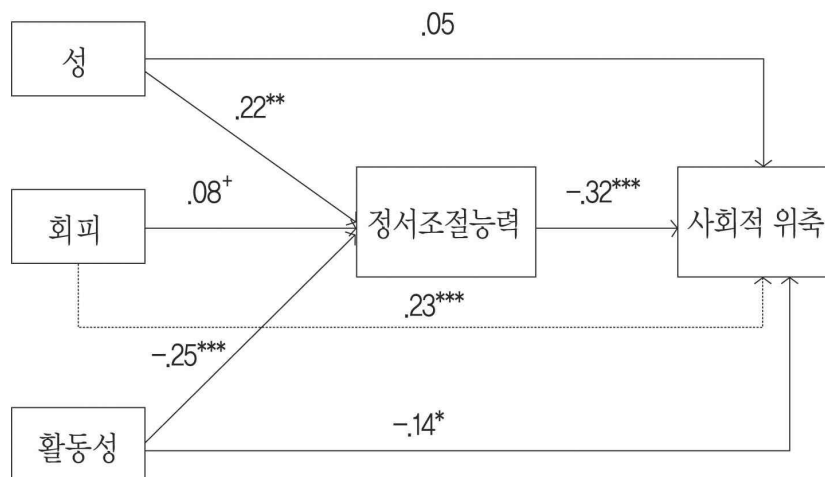
각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6>에

<표 6>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선행변인들의 인과 효과

(N=286)

변인	사회적 위축행동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성	.05	-.07	-.02
활동성	-.14	.08	-.06
회피	.23	-.03	.20
정서조절능력	-.32	-	-.32

서 보듯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정서조절능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아동의 ‘회피’, ‘활동성’ 기질 순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3> 아동의 성, 회피, 활동성 및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하여 초등학교 1-2학년 아동과 그 어머니 286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타고난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행동(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여 이러한 변인들의 직·간접적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별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 활동성 기질,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아동의 성과 '활동성' 기질은 아동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남아인 경우와 활동성이 높은 경우 공격성이 높았다. 남아가 공격적인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Maccoby & Martin, 1983; Weinberg, et al., 1999)과 일치하며, 활동성이 높은 아동이 공격성이 높다는 국내의 선행연구(김정원·김현주, 2007; 선우현정, 2008; 임희수, 2001)들과 유사하다. 또한 아동의 성 및 '활동성' 기질은 아동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의 성은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여아는 정서조절 능력이 높아 낮은 공격성을 보였다. 또한 활동성 수준이 낮은 아동이나 새로운 것을 되도록 회피하는 기

질의 아동은 정서조절능력이 높았으며 결과적으로 낮은 공격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회피성향이 높은 아동의 경우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분노를 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정서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상대적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의 성, 기질, 정서조절 능력 중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정서조절능력으로 나타나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아동은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사회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공격성 등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Eisenberg et al., 1999; Shield & Cicchetti, 1998)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서조절이 요구되는 사회적인 갈등상황에서 활동성 수준이 높은 아동은 산만하며 주의집중력이 떨어져 맥락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한편, 정서조절능력이 떨어져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성이 높아 자주 울고 보채며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의 유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더 잘 보인다는 윤진주 등(2005)의 연구와 다르다. 이와 같은 불일치한 결과는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적 특성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기 어려운 유아기와 달리 아동기에 이르러 어느 정도 감정을 조절할 능력을 습득함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성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아닐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 '활동성' 및 '회피' 기질,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활동성' 및 '회피' 기질은 사회적 위축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활동성이 낮고 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위축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인 '접근성'이나 '활동성' 기질이 낮은 경우 사회적 위축행동이 높다는 Kagan 등(1989)의 주장과 일치한다. 결국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접근성이 낮고, 새로운 환경에 다가가는데 두려움을 느끼며 회피하는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며, 정서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거나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등의 부정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위축된 행동을 더욱 발달시키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활동성' 과 '회피' 기질은 사회적 위축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활동성이 높거나 회피성향이 낮은 아동은 정서조절능력이 낮고 이에 따라 위축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성은 공격성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적 위축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나타내지 않았으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위축에 대한 성의 직접적 영향이 없다는 선행연구(김수미 · 이숙, 2000)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지닌 아동이 대인관계에서 고립적이고 위축된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결과(Calkins, 1994; Selman & Demorest, 1984; Cassidy et al., 1992)를 지지한다.

한편,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본 연구모형에서는 아동의 성이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

동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또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아동의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 등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기초분석 결과 아동의 기질은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한편,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정서조절능력이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김귀연 · 김경연, 2004; 김지윤, 2007; 전숙영, 2007)들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행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양연숙 · 조복희, 2001; 임희수 · 박성연, 2001; Gottman & Katz, 1989)과도 다르다. 이와 같은 불일치한 결과는 몇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측정도구나 평가자에 따른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 또는 아동이 보고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나 아동의 자기보고 공격성과는 상관을 보인 반면, 교사가 보고한 공격성과는 관련을 보이지 않았던 선행연구 결과(박혜경 · 박성연, 2002)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때로는 평가자가 다르더라도 양육행동을 측정도구 내용에서 연구마다 그 조작적 정의가 다른데 기인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강압적 양육행동 내용은 부모의 요구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 비난을 하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심리적 통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연구에 따라서는 복종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측정되기도 하여 부모가 보고한 강압적 양육행동이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예; 선우현

정, 2008). 또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아동의 '활동성' 기질이 어머니의 민주적, 과보호적 양육행동 또는 강압적 양육행동과 상호작용하여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박지숙·박성연, 2008)가 이를 뒷받침한다. 같은 맥락에서 Thomas와 Chess(1977)의 적합성 모델에 의하면 기질 등 개인적 특성은 환경적인 특성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적인 발달적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같은 양육이라도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를 기초로 경로 모형을 설정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이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앞으로 다양한 평가자를 통해, 그리고 일반적인 양육행동보다는 정서조절능력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구체적 훈육방식 등을 측정하는 한편, 중재적인 경로 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높은 '활동성' 기질을 나타내거나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쉽고, 높은 '회피'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의 성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으나 사회적 위축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은 아니었다. 한편 양육행동은 정서조절이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해주는 변인이 아닌 반면, 정서조절 능력은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행동 모두를 가장 잘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행동에 대해 정서조절 능력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타고난 기질적 특성이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이나 공격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Calkins(1994)의 모델을 상당부분 지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성, 활동성 기질과 회피 기질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기질의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동의 적응적인 사회적 행동을 형성하는데 적절한 양육행동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재적 역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상관관계에 기초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기 시기의 사회적 부적응행동인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에 아동의 성, 기질, 정서조절능력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있어서 정서조절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한편 그와 관련된 변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김경희(1999). 유아 정서지능의 구인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25-38.
- 김귀연·김경연(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 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수미·이숙(2000). 아동의 위축행동에 대한 연구. *가정과학연구*, 10, 13-21.
- 김정원·김현주(2007).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

- 의 관계성 연구. *아동교육*, 16(2), 85-93.
- 김지윤(2007). 유아의 기질 및 부모갈등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서현(2003).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숙·박성연(2008).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4), 1-16.
- 박혜경(200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박성연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선우현정(2008).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유림(2007). 공격적 아동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및 또래 지각과 외현적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193-207.
- 양연숙·조복희(2001).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67-81.
- 오희옥·오선영·김영희(2007). 유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대한가정학회지*, 45(2), 1-22.
- 윤진주·강신영·이복주(2005).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된변인들의 관계성 연구-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4(5), 761-770.
- 이명숙(1994). 기질 및 또래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 단기 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래(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양희·김윤영(2002). 유아용 반사회적 행동 평가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3(3), 109-121.
- 이학식·임지훈(2008). SPSS 14.0 매뉴얼, 제 2판. 법문사. 303-304.
- 임희수(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희수·박성연(2001).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전숙영(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 조인영(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진(2007). 상호작용 상황에서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5.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Calkins, S. D. (1994). Origin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N. A. Fos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59, nos. 2-3, serial no.240).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 N.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 3, 779-862.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 M. (1999). Parental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 513-534.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Hastings, P. D., Rubin, K. H., & DeRose, L. (2005). Links among gender, inhibition, and parental social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51*(4), 467-493.
- Hymel, S., Bowker, A., & Woody, E. (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n unpopular children :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4*, 879-896.
- Kagan, J., Reznick, S., & Snidman, N. (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67-171.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Lambert, N. M. (1988). Adolescent outcomes for hyperactive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43*, 786-799.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1-101). New York : Wiley.
- Mills, R. S., & Rubin, K. H. (1998). Are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control both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childhood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0*, 132-136.
- Park, S. Y.,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 Rubin, K. H., Burgess, K. B., & Hastings, P. D. (2002). Stability and social-behavioral consequences of toddlers' inhibited temperament an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73*, 483-495.
- Rubin, K. H., Burgess, K. B., Kennedy, A. E., & Stewart, S. (2003). Social withdrawal and inhibition in childhood. In E. Mash & R. Barkley(Eds.), *Child psychopathology*(pp.372-406), NY : Guilford.
- Schwartz, D., Farver, J. M., Chang, L., & Lee-shin, Y. (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113-125.
- Selman, R. L., & Demorest, A. P. (1984). Observing troubled children's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 Implications of and for a developmental model. *Child Development, 55*, 288-304.
- Shield, A., & Cicchetti, K.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 The contribution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er/Mazel.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Weinberg, M. K., Tronick, E., Cohn, J. F., & Olson, L. K. (1999).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elf-regulation during early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175-188.

2009년 2월 27일 투고, 2009년 5월 6일 수정
2009년 5월 7일 채택